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

- 2022. 2. -

목 차

I. 현황	1
II. 원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	3
1. 한국 경제의 위상	3
2. IMF 설립목적과 부합	4
3. 세계 5대 수출 강국	5
4.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6
5.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7

요지

- ◆ IMF는 회원국의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하고 있다. SDR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IMF 집행위원회는 수출 규모, 자유로운 통화 사용 조건 등을 기준으로 올해 SDR 통화 재구성을 검토한다.
- ◆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가 이번 IMF 집행위원회에서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한국은 세계 Top 10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어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
- ◆ 둘째, 원화의 SDR 구성 통화 편입은 IMF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국가로, 무역 활성화, 빈곤 감소 등 IMF의 목적과 완벽히 부합한다.
- ◆ 셋째, 수출 5대 강국인 한국은 IMF의 SDR 바스켓 편입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수출 조건’을 충족하며, 하이테크 수출품 비중이 높아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수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
- ◆ 넷째,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SDR 바스켓 편입 당시의 위안화에 육박하여, IMF의 SDR 바스켓 편입 두 번째 요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을 충족한다.
- ◆ 다섯째, 한국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원화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외 외환시장 개설 추진 검토 등 외국인의 원화 거래에 대한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I. 현황

-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은 SDR 바스켓 구성 통화 등에 대한 교환권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 IMF가 회원국에 배분
 - * 과거 SDR 배분 시기: '79~'81년(석유파동, 연간 121억SDR), '09.8월(글로벌 금융위기, 1,612억SDR), '21.8월(팬데믹 위기, 4,565억SDR) 등
- SDR 배분액은 회원국의 IMF 출자금 비중에 비례하며, 타 회원국과의 상호 협약에 따라 보유한 SDR을 바스켓 구성 통화 등과 교환 가능
 - * 한국은 '21.8월 중 출자금 지분 1.8%에 해당하는 82억 SDR(약 117억 달러) 수령
 - '21.12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 내 SDR 잔액은 약 153.6억 달러
-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되며, 통화발행국 수출 규모 및 해당 통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편입 비중 산출
- SDR 1단위 가치는 편입 비중에 따라 산정된 통화별 구성 단위를 달러 시세로 환산하여 합한 값으로, 시장환율에 의해 날마다 조정
 - * '22.2.7일 현재 SDR 1단위의 가치는 약 1.4달러에 해당(IMF)

<SDR 1단위를 구성하는 통화별 편입 비중 및 통화별 구성 단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편입 비중	41.73%	30.93%	10.92%	8.33%	8.09%
구성 단위	0.58\$	0.39€	1.02CNY	11.90¥	0.09£

* 자료: IMF

- IMF 집행이사회는 5년에 한번 SDR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재조정
 - '15년 위안화의 바스켓 신규 편입이 최종 결정, '16년 정식 발효되었으나 금번 검토는 '21년 예정이었으나 '22년 중반으로 연기
 - * 신규 통화의 바스켓 편입이 확정될 경우, '22.8.1일 발효 예정
 - SDR바스켓 선정 요건은 ① 발행국의 수출규모(Export Criterion)와 ② 자유로운 통화사용(Freely Usable Currency Criterion)에 기반
 - * 자유로운 통화사용: (i)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Widely Used), (ii) 외환시장에서 폭넓게 거래(Widely Traded) 조건 동시 충족(IMF 조항 xxx(f))

□ IMF는 '15년 위안화를 바스켓 통화로 편입하면서, 위안화에 적용된 바스켓 적정통화 요건이 다른 미편입 통화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

○ (IMF의 위안화 편입 근거) ▶ 중국의 수출 규모, ▶ 국제거래 및 외환 거래에서의 위안화 비중 증가, ▶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및 외환시장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 블룸버그는 위안화가 편입될 당시, IMF의 적정통화 편입 요건에 기반하여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

(1순위 원화, 2순위 싱가포르 달러, 3순위 캐나다 달러 順)

◆ 위안화(RMB) 편입 결정에 대한 IMF 검토 보고서('15.11월)

* (수출규모) “China continues to be the third-largest exporter, thus meeting the export criterion for SDR basket inclusion”

* (국제거래 및 외환거래에서의 위안화 비중 증가) “...use of the RMB in international payments has risen substantially, reaching in staff's view a critical mass such that it can now be considered "in fact, widely used to make paymen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der the freely usable currency definition”

* (정부의 정책 개선)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made important progress in addressing operational issues flagged in the July paper”

* (위안화에 적용된 편입 조건을 기타 통화에도 적용 가능) “...the standard appli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the RMB is freely usable would also be applied to other currencies. Based on this standard, the indicators discussed in Section II suggest that there are additional currencies that could potentially be determined to be freely usable currencies.”

II. 원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

1. 한국 경제의 위상

□ 한국은 글로벌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진국

- 한국은 GDP, 교역액이 모두 세계 Top 10인 경제 대국이며, SDR 미 편입국 중에서는 GDP 2위(캐나다 1위), 수출·수입 1위
 - * 韓 GDP('20년, IMF) : \$1.6조(세계 10위)
 - * 韓 교역액('20년, IMF) : \$9,803억(세계 9위), 홍콩 제외 SDR 미 편입국 중 1위
-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및 대외건전성으로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 중, 특히 기존 SDR 편입국인 일본,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
 -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2.1월 기준) : 韓 AA > 日·中 A+(S&P), 韓 Aa2 > 日·中 A1(Moody's), 韓 AA- > 中 A+ > 日 A(Fitch)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 이후 두 차례의 글로벌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
 - * 글로벌 금융위기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08~'09년, IMF) : 1.9%(G20 중 7위)
 - * 코로나 팬데믹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20~'21년^e, IMF) : 1.7%(G20 중 3위)

□ 튼튼한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한 선진 금융시장도 보유

-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선진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
 - *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20년,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 시가총액 \$2.2조(세계 9위), 거래대금 \$5.2조(세계 4위)
- 최근에는 한국 증시를 MSCI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에 지속 노력
 - * 전경련, 모건스탠리사에 한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 건의('21.5월)
 - * 한국정부 경제부총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21.12월)
-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 기관인 Dow Jones('99년), S&P('08년), FTSE('09년)는 이미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로 분류 중

2. IMF 설립목적과 부합

◆ IMF 설립목적

- IMF는 글로벌 통화 협력, 금융 안정 확보, 국제무역 활성화, 고용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
- *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an organization of 190 countries,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 원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은 IMF 설립목적과 부합

- 한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IMF 차입금 조기상환 등 IMF의 비전인 경제성장, 무역 활성화, 빈곤 감소 등의 모범국

□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

-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전
- * 국가 세입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한국은행, '59년) : 52%(236 / 455억 원)

<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 >

	1956년	2020년	변화
GDP(억 달러)	15	16,382	1,092배 증가
1인당 GNI(달러)	66	31,881	483배 증가
교역규모(백만 달러)	411	980,131	2,385배 증가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특히,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통해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상징성도 존재

< 한국 외환위기 극복 과정 >

'97.12월	IMF 구제금융 요청 (IMF로부터 195억 달러 규모 자금 도입)
↓	
자금 도입 이후 ('97.12월~)	외환위기 극복 위한 경제 체질 개선 - 세수 확충 및 세출 축소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부채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구조조정 통한 금융시장 선진화
↓	
'01.8월	IMF 구제금융 차입금 당초 일정보다 3년 일찍 전액 조기상환 완료

3. 세계 5대 수출 강국

◆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 ① 수출규모

○ 통화발행 주체 기준 수출규모 세계 5위권에 포함

* "A currency meets the export criterion if its issuer is an IMF member or a monetary union that includes IMF members, and is also one of the top five world exporters"

○ (바스켓 통화 교체요건) 기타 통화발행 주체의 수출액이 바스켓 통화발행 주체 수출액을 1%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통화로 교체 가능

* "... a currency can only be replaced in the basket by another currency if the value of exports of the member or monetary union whose currency is not included in the basket during the relevant period exceeds that of a member or monetary union whose currency is included in the basket by at least 1 percent."

□ '15년 SDR 편입 검토 이후 한국 수출액('16~'20년 평균)은 \$5,438억, 세계 교역 비중은 3.1%로 통화발행 주체* 기준 세계 5위

* 국가 기준 수출액 3위 독일과 5위 네덜란드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소속

○ 한국 수출액은 기존 SDR 편입국인 영국(\$4,404억, 10위)의 1.2배에 달해 파운드에서 원화로의 SDR 바스켓 통화 교체 요건도 충족

○ SDR 편입국 제외 시, 한국 수출액은 세계 1위

<통화 발행주체별 '16~'20년 평균 수출금액(억 달러 기준)>



* 자료 : IMF

□ 한국은 주요국 대비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수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가능

<국가별 하이테크 재화 수출 비중>

	한국	중국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하이테크	32.4%	30.8%	18.9%	16.5%	17.0%	18.0%

* 주 1) '19년 총 제조업수출액 대비 비중

2) 하이테크는 R&D 지출 비중이 높은 재화로 컴퓨터, 과학기기, 바이오·제약 제품 등이 해당

* 자료: UN('21년, 총 제조업수출 대비)

4.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

② 자유로운 통화사용 :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가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

* “The use of the RMB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from a low base”

* “The RMB has also become far more actively traded in FX markets”

□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 및 원화자산 대외수요 증가세 지속

○ 한국 교역액 중 원화결제 비중은 '20년 사상 최고치(4.9%) 기록

* 원화 결제비중 추이: 0.1%('92년), 0.5%('00년), 1.7%('10년), 4.9%('20년)

○ 국내 원화표시채권 잔액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상승세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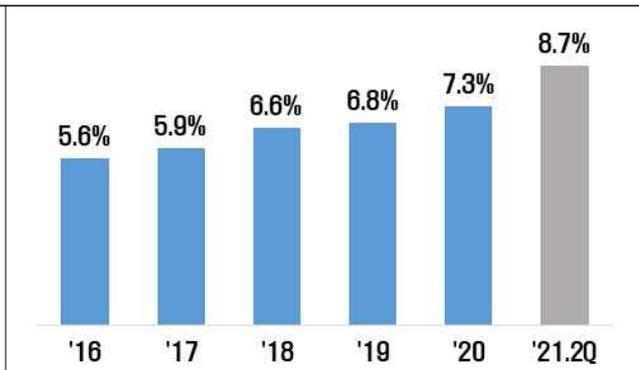
* 원화채권 외국인 보유 비중: 5.6%('16년), 7.3%('20년), 8.7%('21.2분기)

<한국 수출입 원화결제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원화채권 외국인 보유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도 '15년에 위안화가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의 외환시장 위안화거래 비중에 근접

○ '19년 원화거래 비중은 2.0%로, 위안화 편입('15년) 당시의 위안화거래 비중('13년, 2.2%)과 0.2%p 차이에 불과(BIS, '19년)

* BIS의 관련 통계는 매3년마다 발표되므로 '14~'15년 위안화거래비중 통계는 없음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원화 거래비중 추이>

	2007	2010	2013	2016	2019
원화	1.2%	1.5%	1.2%	1.7%	2.0%

* 자료: BIS('19.4월 일평균 거래액 기준, 3년에 한번씩 조사)

5.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

③ 자유로운 통화사용 : 정부의 통화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혁

* "The steady increase in RMB internationalization has been supported by recent reforms... steps to enhance market infrastructure provide fundamental support for greater cross-border use of the currency."

*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made important progress in addressing operational issues... FX markets has been fully liberalized for reserve managers of IMF member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한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로 원화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당시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원화의 환율 안정성 유지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력: 300억 달러('08.10월), 600억 달러('20.3월)

○ 달러 외에도 자국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로 원화결제 활성화 도모

<한국의 주요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달러화 스와프 外)>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규모(조 원)	한도없음	70	11.2	10.7	9.6
만기일	상설	'25.10월	'26.3월	'23.3월	'23.2월

* 기타체결국: UAE(6.1조) 말레이시아(5조), 터키(2.3조)

* 자료: 한국은행('21.8월)

○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도 체결국가간에 달러 이외에도 해당국 통화를 스와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역내 원화경쟁력 확보 환경 마련

* CMIM : ASEAN+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 한국 정부는 원화거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 특히 역외 외환시장 개장 등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대폭 증가 기대

<정부 추진·검토 중인 외환시장 개혁안>

내용	현행	추진·검토안
역외 외환시장	역외 시장 부재	원화 역외거래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9:00 ~ 15:30	해외 영업시간 포괄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	정부 인가받은 국내 금융기관에 한정	해외 금융기관 직접거래 허용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